



하루에 하나

2026.6.2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504.3원 (-3.60원)

KOSPI

8,788.38 (+312.23, +3.68%)

KOSDAQ

1,050.03(-24.77, -2.30%)

국고채 10년 금리

4.174(+0.106%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Global ETF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우선순위 변수 중심의 대응 국면 [박승진]
New K-ETF	삼성전자+현대차 채권혼합50, 중단기 채권 액티브 [박승진]
DIN (Doo It Now)	젠슨 황 2차 회동, 사진보다 주문서 [김두연]
Econ Snapshot	한국 5월 수출입 동향: 169% vs 16% [전규연]
해외채권	엔화 개입에도 제자리 걸음 [허성우]

기업분석

케이엠더블유	미국에서 삼성 수혜 볼 것, 길게 보면 너무 싼 주식 [김홍식]
--------	-------------------------------------

산업분석

2차전지	5월 2차전지 수출입 동향 상세 [김현수]
------	-------------------------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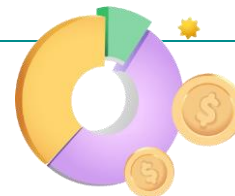
건설	6월은 삼성물산과 아이에스동서로 대응 [김승준]
----	----------------------------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HD현대중공업, LG이노텍, KT&G, 삼성증권, OCI홀딩스,
덕산하이메탈, 에치에프알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6.1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우선순위 변수 중심의 대응 국면

최종 지점에 대한 해석 반영. 본질적인 실적 모멘텀 차별화 지속: SMH/DRAM, PAVE/AIRR, NASA, DIVO/QDVO 등 활용

- 글로벌 수급:** 지역별 차별화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 기초가 지속되었다. 북미지역 주식형 ETF 시장과 글로벌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에 대해 각각 +98.6억달러, +182.2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된 반면, 선진 유럽과 아시아 주식형 ETF 시장에서는 -86.1억달러가 순유출되었다. 신흥국 주식형 ETF 시장의 경우 4주 연속 자금 유출 기초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다시 -130.1억달러의 자금 유출이 진행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에서는 선진국 채권형 ETF 시장에 +156.2억달러, 신흥국 채권형 ETF 시장으로 +23.7억달러가 유입되면서 총 +179.9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 종목별 수급:** 미국 ETF 시장의 종목별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일회성 수급 변동과 더불어 시장 전반의 모멘텀 인식 변화가 진행되면서 대표 주식형 ETF들과 핵심 테마형 ETF들로 자금이 유입되었다. 배당귀족주 ETF인 NOBL과 S&P500지수를 추종하는 VOO/SPY, IT섹터 ETF인 VGT, Russell2000 지수 추종 ETF인 IWM, 가치주 스타일 ETF VLUE, NASDAQ100 지수 ETF인 QQQ로 각각 10억달러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테마 ETF 종목들인 DRAM(메모리반도체)과 NASA(우주), XOV(크로스오버) 역시 자금 유입 상위 종목 리스트에 자리하였다.
- 글로벌 채권형 ETF** 종목군의 경우 SCOV(초단기국채), BNDX(미국제외 해외채권), SCHO(단기국채), VTEB(지방정부채)를 중심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된 반면, BIL(초단기국채)과 HYG(HY회사채), VGSH(단기국채), TLT(장기국채) 등에서는 자금 유출 흐름이 나타났다. 원자재 ETF 종목군의 경우 종전 기대와 인플레이션 경계가 동시에 반영되며 SCO(원유선물 레버리지), GLD/GLDM(금현물), BOIL(천연가스 선물 레버리지), SLV(은 현물) 등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대표 비트코인 현물 ETF들인 IBIT/FBTC/GBTC 등에서도 투자자금 유출 현상이 동반되었다.
- ETF 포트폴리오:** 통화정책과 금리 경로에 대한 노이즈가 종전 기대 강화 흐름과 맞물려 한풀 꺾이면서 실적 기반의 장세가 재개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 세부 내용의 합의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컨센서스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이보다 양쪽의 종전 의사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 직접적으로 1차적인 영향권에 놓여있는 원자재, 채권, 외환시장 보다 더욱 실적 모멘텀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5월 ISM 보고서와 고용보고서가 확인될 예정이며, Broadcom과 소프트웨어/사이버보안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가 시장 관점에서 주요 이슈들로 작용할 전망이다.
- 먼저 확인하게 될 ISM 보고서의 경우, 서베이 지표의 특성상 종전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지난 4월보다 반동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세부지수 내용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신규주문, 생산 지표 등의 경제활동 지수와, 수익성과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매가격/지불가격 간의 디테일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활동 지수 항목들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나타날 경우 긍정적 해석 요인으로 집중되겠으나, 가격지수들이 주도하는 반동 흐름은 반대로 부담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 고용보고서는 4.3%의 실업률 유지 가운데 비농업고용자수가 감소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소폭 반등할** 전망이다. 시장 컨센서스대로 나온다면 기업들의 협상력 강화와 함께 향후 임금상승 압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 확대될 수 있다. 고임금 섹터의 고용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를 함께 고려할 경우, 이는 가계 전반의 소비 여력 훼손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미국의 1분기 GDP 잠정치는 속보치 2.0%에서 1.6%로 수정되었는데, 민간 재고투자와 개인소비 부분의 하향 조정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고, 이 역시 인플레이션 부담 가운데 편더멘탈 퀄리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조합의 내용이다. 참고로 주말부터는 6월 FOMC(6/16~17)을 앞두고 연준인사들의 발언이 제한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진입한다.

- 기업 실적의 경우 수요일(6/3) 미국 장 마감 후 발표되는 Broadcom이 중요하다. AI 네트워크 및 맞춤형 ASIC 수요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AI 관련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Palo Alto(6/2), CrowdStrike(6/3), Rubrik(6/4), DocuSign(6/4) 등 소프트웨어 및 사이버보안 기업들의 실적도 AI 투자 및 IT 지출 흐름을 점검하는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 ETF 포트폴리오는 AI 산업 성장의 단순한 스토리 하에서 우선순위에 자리하고 있는 SMH/DRAM(반도체), ZAP/POWR(전력), URA/NLR(원전)의 중장기 포지션을 중심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액티브 운용 방식을 통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CHAT/BAI(AI 액티브) 역시 실적 모멘텀 기반의 투자 고려 대상 종목군이 되겠다.
- SpaceX 상장 기대와 함께 정부 정책 및 민간 확장 모멘텀을 갖춘 ARKX/NASA(우주항공)도 여전히 관심권에 들 만한 종목들이 되겠다.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과 경쟁 구도 하에서 투자 모멘텀이 유효한 PAVE(인프라)와 AIRR(중소형제조업), 때가 되면 부각되는 REMX(희토류 기업)도 함께 시야에 두는 전략을 제시한다. 변동성 완화 기대가 유효하다는 판단 하에서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인 DIVO/QDVO 역시 적절한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2026년 6월 1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New K-ETF

삼성전자+현대차 채권혼합50, 중단기 채권 액티브

신규 상장 ETF(6/2)

- WON 삼성전자현대차 채권혼합50, WON 중단기 종합채권(A-이상) 액티브

WON 삼성전자현대차 채권혼합50: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주식, 그리고 우량 채권으로 구성된 채권혼합형 패시브 ETF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피지컬 AI 관련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각각 25%씩, 총 50%를 주식 포지션으로 편입하며, 나머지 50%는 중단기 우량 채권 포트폴리오에 투자한다. 주식과 채권을 50:50 비중으로 배분하는 구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채권혼합형 ETF로 분류된다.

주식 포지션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미래 모빌리티 및 휴머노이드 산업을 선도하는 현대차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삼성전자는 로봇 구동에 필요한 저전력 메모리(LPDDR)부터 AI 학습 인프라의 핵심인 HBM까지 피지컬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메모리 밸류체인을 아우르고 있으며, 현대차는 제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로봇 하드웨어 양산 역량과 스마트 제조,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기 두 종목만을 편입하는 집중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피지컬 AI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되겠다.

채권 포트폴리오는 우량 단기채 중심으로 구성해 높은 안정성을 추구한다. 투자 대상 유니버스는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과 함께 AA- 등급 이상의 은행채, 여신전문금융채, 회사채, 공사채 중 발행잔액이 500억 원 이상인 종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잔존만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채권을 선별하여 편입하며, 평균 듀레이션을 약 0.7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성이 낮게 유지되도록 한다. 포트폴리오는 총 30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각 채권은 액면금액 기준 동일비중 방식으로 편입된다. 또한 매일 리밸런싱을 실시하여 목표 비중과 듀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채권혼합형 ETF로 분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의 비중(안전자산으로 분류)까지 채워 넣을 수 있다. 0.18%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패시브 ETF이다.

WON 중단기 종합채권(A-이상) 액티브: 듀레이션이 1~2년 수준인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의 채권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채권형 액티브 ETF이다.

비교지수인 'KAP 중단기 종합채권 총수익 지수(A-이상)'는 국채, 지방채, 통안채와 A- 등급 이상의 은행채, 여신채, 회사채, 공사채를 편입 대상 유니버스로 한다. 상기 유니버스 가운데 만기가 3개월~3년이며, 발행 잔액은 500억원 이상인 채권 종목들(FRN, 주식관련채권, 후순위채, 사모채권, 옵션부채권은 제외)을 선별하여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개별 편입 비중을 할당한다. 0.091%의 총 보수가 적용된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도표 1. WON 삼성전자현대차 채권혼합50, WON 중단기 종합채권(A-이상) 액티브 ETF의 종목 개요

ETF명	WON 삼성전자현대차 채권혼합50	WON 중단기 종합채권(A-이상)액티브
상장일	2026년 6월 2일 화요일	2026년 6월 2일 화요일
기초(비교)지수	KAP 삼성전자현대차 채권혼합 지수	KAP 중단기 종합채권 총수익 지수(A-이상)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실물(액티브)
1좌당 가격	10,000원	50,000원
총 보수	0.18%	0.091%
구성종목 수	32종목('26.2월 말 기준)	5,563종목 ('26년 1월 말 기준)
비중결정방식	- 주식: 동일가중 - 채권: 액면동일비중	시가총액 비중방식 - 전일시가총액 : 채권지수, 개별 수익률 - 당일시가총액 : 보조지표 (YTM, 듀레이션, 컨벡시티 등)
정기변경	일간 리밸런싱 실시 (채권 하위 지수는 월간 리밸런싱 실시)	해당 사항 없음

자료: KRX, 하나증권

2026년 6월 2일 | Global Asset Research

Equity

DIN (Doo It Now)

젠슨 황 2차 회동, 사진보다 주문서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젠슨 황 이벤트는 사되, 사진이 아니라 주문서를 사야 한다. 둘째, 유가 하락은 반갑지만, 재고가 비어 있는 원유시장은 믿지 말아야 한다. 셋째, AI 시대의 주도주는 GPU 주변이 아니라 병목 주변에서 나온다. 이 세 문장을 포트폴리오로 바꾸면 답은 더 분명해진다. 이벤트성 순환매는 전력, 냉각, 네트워크, 로봇으로 확산될 수 있다. 정책 자금은 코스닥 성장주에 온기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본류는 여전히 메모리다. AI 투자가 커질수록 가장 먼저 부족해지고, 가장 비싸지고,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이 메모리이다.

시장은 이벤트를 좋아한다. 그러나 추세는 이벤트가 아니라 주문서가 만든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한국 방문 기대는 단순한 방한 뉴스가 아니다. 지난해 1차 간부회동 이후 시장은 분명하게 반응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SDS, 현대차, 로봇 관련주가 차례로 움직였다. 시장이 산 것은 '치맥 사진'이 아니었다. 한국 기업이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고객이자 공급자, 그리고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이번 2차 간부회동의 의미는 더 넓다. 1차가 AI 팩토리화 반도체 중심의 이벤트였다면, 2차는 피지컬 AI와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이벤트다. AI가 데이터센터 안에서 머물던 시대는 지나고 있다. 이제 AI는 공장, 자동차, 로봇, 가전, 물류, 클라우드로 내려오고 있다. LG는 로봇과 스마트홈, 전장으로 연결된다. 네이버는 소버린 AI와 클라우드, 로보틱스로 연결된다. 현대차는 자율주행과 로봇, 스마트팩토리로 연결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HBM과 고용량 메모리의 핵심 공급망이다.

따라서 이번 이벤트를 보는 기준은 단순해야 한다. 누가 젠슨 황을 만나는지가 아니라, 누가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반복 매출을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사진은 하루짜리 재료다. MOU, 공동개발, GPU 구매, 데이터센터 구축, 로봇 플랫폼 도입, 스마트팩토리 확산은 추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장세의 첫 번째 원칙은 젠슨 황 이벤트는 사되, 사진이 아니라 주문서를 사야 한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AI 병목이다. AI 시대의 주도주는 GPU 주변이 아니라 병목 주변에서 나온다. AI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 혁명만이 아니다. 전기를 먹고, 열을 만들고,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메모리를 요구하는 거대한 물리적 산업이다. 전력기기, 변압기, 전력망, 냉각, 광통신, 네트워크, 서버, 로봇은 모두 AI 인프라의 하부 구조다. 그래서 시장은 반도체에서 전력으로, 전력에서 냉각으로, 냉각에서 로봇으로 수혜를 넓혀갈 수 있다.



국내외 주식시황 김두언 kimdooun@hanafn.com
채널전략팀 RA 김민근 minkeunkim@hanafn.com

그러나 확산과 분류는 구분해야 한다. 전력과 냉각, 네트워크와 로봇은 분명 중요하다. 다만 AI 투자의 가장 확실한 병목은 여전히 메모리다. GPU가 AI의 엔진이라면, HBM과 고용량 DRAM은 연료이자 혈관이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연산량은 늘고, 연산량이 늘수록 메모리 대역폭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학습에서 추론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해도 메모리의 가치는 줄지 않는다. 오히려 시가 일상과 산업현장으로 확산될수록 더 많은 메모리, 더 빠른 메모리, 더 비싼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메모리 반도체이다. 시장은 늘 새로운 테마를 원한다. 그러나 큰 돈은 결국 가장 확실한 병목으로 돌아온다. HBM은 단순한 사이클 제품이 아니다.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자산이자, AI 인프라 증설의 필수재다(5/12, [안보자산을 선점하라 참고](#)). 고객은 제한적이고, 품질 장벽은 높으며, 공급은 쉽게 늘지 않는다.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다. 이것이 병목이고, 병목을 가진 기업이 주도주다. 한국 시장에서 그 병목을 가장 선명하게 가진 기업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다.

유가 변수는 방심할 수 없다. 미국-이란 MOU 기대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우호적이다. 지정학 프리미엄이 낮아지면 유가는 안정되고, 한국 증시에는 숨통이 트인다. 물가, 금리, 환율, 외국인 수급 부담이 동시에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MOU는 평화가 아니라 시간 벌기일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원유 재고다. 재고가 충분할 때 지정학은 프리미엄에 그치지만, 재고가 비어 있을 때 지정학은 가격 충격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도 분명하다. 유가 하락은 반갑지만, 재고가 비어 있는 원유시장은 믿지 말아야 한다.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정제 능력을 보유한 발레로 에너지 회사 추정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하루(1일) 폐쇄될 때마다 재고를 복구하는 시일은 3일이 소요된다.

유가가 안정되면 시장은 다시 실적과 성장으로 돌아간다. 그 중심에는 AI 주도주가 있다. 반대로 유가가 다시 오르면 시장은 비용과 금리, 환율을 다시 걱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주 한국 증시의 단기 리스크 지표는 유가다. 하지만 유가가 시장의 방향을 흔들 수는 있어도, AI 병목이라는 중기 추세를 바꾸기는 어렵다. 유가가 소음이라면, 메모리는 신호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차도 코스닥에는 긍정적이다. 1차 자금 집행과 2차 모집 기대는 성장주에 정책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 특히 AI, 바이오, 로봇, 첨단장비, 방산, 핵심소재에는 온기가 돌 가능성이 높다. 다만 코스닥 전체를 사는 전략은 위험하다. 정책 자금은 모든 종목을 살리지 않는다. 정책 자금은 명분이 있는 기업을 먼저 산다. 기술특례, 바이오, 로봇, AI 소프트웨어, 장비, 소재, 방산, 핵심광물처럼 정책 언어와 산업 언어가 만나는 곳이 우선이다. 단순 테마주보다 실제 증자, 메자닌, 신규자금 유입이 가능한 기업을 봐야 한다. 코스닥의 반등은 가능하지만, 확산은 선별적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주도주를 억지로 찾는 일이 아니다. 이미 주도주가 된 기업이 왜 더 오래 주도주로 남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AI 병목의 중심에 있다.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병목이 해소되지 않는 한 주도주의 지위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시를 사되, 시라는 단어를 사지 말자. 이벤트를 사되, 사진을 사지 말자. 병목을 사고, 병목의 중심에 있는 주도주를 사자. 여주사.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Econ Snapshot

Economy | 2026.6.1



Economist 권규연 kychun@hanafn.com

RA 이태석 taeseoklee@hanafn.com

한국 5월 수출입 동향: 169% vs 16%

한국 5월 수출입동향: 반도체 수출은 169%, 반도체 외 품목 수출은 16%

- 한국 5월 수출/입 증가율은 전년비 53.2%/20.8%(당사 예상치 50.8%/21.5%)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며, 무역수지는 269.5억 달러 흑자 시현. 수출액은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상회했으며, 조업일수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60.7% 증가하며 한국 수출 호조 지속
- 반도체, 컴퓨터를 비롯한 IT 전 품목 수출이 증가했으며, 화장품, 농수산물 등 유망 소비재 수출도 양호한 실적을 보이며 수출 호조를 주도. 단, 반도체 수출은 전년비 169% 증가한 반면 반도체 외 품목 수출은 전년비 16% 증가하며 품목별 차별화 흐름은 계속되는 양상
- 반도체 수출(전년비 169.4%)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에 따라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5개월 연속 세 자릿수 대 증가율을 시현. 한국 5월 수출 중 반도체 수출 차지 비중은 42%까지 상승. AI 서버용 SSD 수요 증가로 5월 컴퓨터 수출 증가율도 전년비 290.7% 기록
- K뷰티에 대한 선호도 확대로 화장품 수출이 전년비 24.2% 증가했으며, 농수산물 수출은 면, 빵류와 같은 농산가공품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
- 석유제품(46.6%) 및 석유화학(11.1%) 수출은 고유가로 인한 단가 상승 영향으로 증가했지만 물량은 감소.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 미국 관세 영향 등으로 자동차(-5.9%), 자동차부품(-2.5%), 일반기계(-6.3%), 철강(-2.1%) 등 품목 수출은 감소

역대 최대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 전망. 하반기에는 수입 증가율의 동반 상승으로 기여도 소폭 약화

- 하반기에도 반도체 주도의 한국 수출 호조는 이어질 전망.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양사의 영업이익 전망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중. AI 서버 수요 증대와 공급 부족으로 범용 반도체 가격은 급등. 반면 반도체 공급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확대되고 있어 반도체 단가 주도의 수출 증가세는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
- 다만 반도체 설비투자 확대에 의해 반도체 제조장비를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한국 수입 증가율의 동반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 높음
- 중동 전쟁으로 인해 아직까지 국내 원유 수입 물량이 제한적인 점도 염두에 둘 필요. 5월 원유 도입 물량은 전년비 -25.0% 감소했는데 도입 단가가 전년비 66.6% 상승해 원유 수입액은 전년비 25.0% 기록.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후 원유 도입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원유 수입액이 급등할 가능성 경계
- 한국 2026년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나, 하반기 한국 수입 증가율의 동반 상승 감안 시 상반기 대비 하반기 대외부문 기여도는 소폭 약화될 여지. 금년 7월 전후로 미국의 대 주요국 관세 부과 압력이 재차 부각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

2026년 6월 2일 | Global Asset Research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해외채권

엔화 개입에도 제자리 걸음

- 4월 말 이후 한 달간 일본 당국의 엔화 매수 개입 규모는 11.7조 엔. 그럼에도 엔화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중. 미 국채 매도를 통해 개입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높음
- 추가 외환 개입 가능성 열려 있음. 미 국채 추가로 매도한다면 금리 상방 압력 가중될 것
- 엔저 압력은 긴축 시계를 당기는 촉매제. 연내 기준금리 1.50%, 일본 10년 상단 3.00%

미 국채 매도를 통한 엔화 자금 조달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4월 말~5월 말) 당국은 약 11.7조 엔 규모의 엔화 매수 개입을 단행했다. 이는 2022년 이후 단일 개입 기준 최대 규모이다. 그러나 대규모 실탄 투입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엔화 약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도표 1]

2022년 이후의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엔화 매수(달러 매도) 개입 이후 최소 3개월간은 일시적으로나마 엔화 강세가 연출된 후 재차 약세로 전환되는 패턴을 보였다. 반면 이번 국면에서는 개입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60엔이 재차 위협받고 있다.

외환 시장 개입 자금은 일본 정부 계정인 외환자금특별회계(Foreign Exchange Fund Special Account, 이하 FEFS)를 통해 관리된다. 개입 방향에 따라 조달 메커니즘이 다른데, 엔화 매도(달러 매수) 개입 시에는 필요한 엔화 자금을 재정증권(Financing Bills, FBs)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반면, 지금과 같이 엔화 매수(달러 매도) 개입 시에는 FEFS가 기보유한 달러 자금(외환보유고)을 활용한다.

4월 기준 일본의 공식 외환보유고는 1.38조 달러로 2024년 7월을 기점으로 큰 틀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크게 외화 증권, 외화 예치금, 금, IMF 예치금, SDR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미국 국채를 포함한 장기 자산인 '외화 증권'이 약 1조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도표 2] 이번에도 일본 당국이 미 국채를 매각해 개입 자금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과거 엔저 방어기 당시 데이터가 명확히 증명했기 때문이다. [도표 3]

1차 방어기(2022년 9월~10월): 9.1조 엔(약 619억 달러, 개입 시점 당시 평균 환율 적용)의 엔화 매수 개입을 진행했다. 미국 TIC 통계상 일본의 미 국채 보유량이 1,310억 달러 감소했고, 일본 정부 공식 외화 증권 계정 역시 950억 달러 감소했다.

2차 방어기(2024년 4월~5월): 9.8조 엔(약 630억 달러, 개입 시점 당시 평균 환율 적용)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TIC 기준 미 국채 보유량은 610억 달러, 외화 증권 계정은 673억 달러 동반 감소했다. 즉, 엔화 약세 방어에 투입되는 달러 실탄의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 매각을 통해 조달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참고로 정부 개입액과 미 국채 보유액 변동치(TIC)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민간 수급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미 국채 보유량(1.19조 달러)은 일본 정부(외화 증권)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 농림중앙금고 등 민간 금융기관의 보유량까지 합산한 수치이다. 따라서 정부가 자금 마련을 위해 국채를 매도할 때 민간의 국채 매도세까지 곱칠 경우 전체 감소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물론 미 국채를 매도하지 않고 즉시 투입 가능한 현금성 자산인 '외화 예치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개입에 투입된 11.7조 엔(740억 달러)은 현재 일본이 보유한 전체 외화 예치금의 약 45%에 달한다. 향후 추가적인 개입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가용 현금의 절반을 한 번에 소진하기보다, 미 국채를 매각해 현금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달러-엔 환율 160엔 사수를 위한 추가 개입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엔화 매수 자금 조달을 위해 미 국채를 추가로 매도한다면, 이는 미 국채 금리 상방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미국에게 일본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도표 4]**

일본 당국의 '160엔 사수' 의지는 확고하지만, 엔화 개입만으로는 엔화 약세 흐름을 뒤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국과 일본의 유의미한 내외 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엔화의 구조적 약세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엔저 압력은 BOJ의 긴축 시계를 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당사는 BOJ가 6월 인상을 시작으로 하반기 중 추가 두 차례 인상을 단행해 연내 기준금리를 1.50%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 10년물 금리 상단 전망치 역시 3.00%를 유지한다. 연말까지 BOJ의 점진적 인상이 누적된다면 일본 국채(JGB)의 절대적인 금리 매력도는 높아지겠지만, 유의미한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은 연말 이후라는 판단이다.

2026년 06월 02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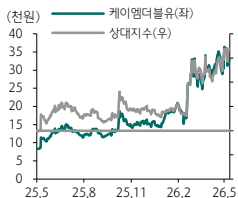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70,000원
현재주가(6.01) 32,7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1,050.03
52주 최고/최저(원)	36,400/10,350
시가총액(십억원)	1,379.7
시가총액비중(%)	0.24
발행주식수(천주)	42,191.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840.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4.9
외국인지분율(%)	7.35
주요주주 지분율(%)	
김덕용 외 1인	30.4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50.7	390.6
영업이익(십억원)	1.6	111.9
순이익(십억원)	2.0	114.7
EPS(원)	48	2,719
BPS(원)	3,162	5,880

Stock Price**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87.4	97.5	150.7	390.6
영업이익	(45.5)	(23.8)	1.6	111.9
세전이익	(37.4)	(30.4)	2.0	114.7
순이익	(38.6)	(27.0)	2.0	114.7
EPS	(969)	(672)	47	2,719
증감율	적지	적지	호전	5,685.11
PER	(9.06)	(21.43)	695.74	12.03
PBR	2.43	4.48	9.42	5.28
EV/EBITDA	(11.15)	(43.91)	142.23	11.40
ROE	(24.24)	(19.66)	1.43	56.29
BPS	3,607	3,211	3,471	6,189
DPS	0	0	0	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케이엠더블유 (032500)**미국에서 삼성 수혜 볼 것, 길게 보면 너무 싼 주식****매수 의견/12개월 목표가 7만원 유지, 길게 보면 빨리 사는데 유리**

KMW에 대한 투자이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70,000원을 유지한다. 구체적인 추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금주 미국 주파수 경매를 계기로 금년 4분기 이후 5G 투자가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이고, 2) 미국 사업자간 경쟁 상황을 감안할 때 AT&T와 더불어 버라이즌도 곧 5G 투자 확대를 공식 언급할 가능성이 높으며, 3) 미국/중국이 피지컬 AI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음에 감안할 때 곧 국내도 5G SA 도입 확산 정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4) 최근 1년간 적지 않은 주가 상승을 기록했지만 향후 등장할 재료를 감안하면 아직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며, 5) 향후 이론상 KMW 최대 매출액과 과거 해외 사례를 감안하면 1.4조원에 불과한 현 KMW의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적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버라이즌 진출은 사실상 확실, 중국 장비 제재 감안 시 M/S 전망 낙관적

최근 KMW를 적극 추천하는 배경에는 미국 주파수 경매 영향과 중국 장비 제재 영향이 가장 크다. 아직은 버라이즌이 5G SA/6G CAPEX 확대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주파수 경매에 참여해 주파수를 확보할 경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가 버라이즌 벤더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8조원에 달하는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삼성전자 5G 투자 초기 납품 규모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 더불어 5G 도입 초기와 달리 이번에는 삼성전자 벤더 내 KMW M/S 비중이 높을 것이란 점도 기대를 갖게 한다. 올해부터 미국이 사실상 중국산 부품 사용 제품에 전파 인증을 해주지 않는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과거 RU 시스템 장비를 OEM으로 공급한 유일한 회사이기도 하지만 필터/안테나 부문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구축한 가운데 규제상으로도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큰 기대를 갖게 한다.

단기 미국, 장기 한국 공급 가능성 감안 시 현재 시가총액 너무 적은 상황

KMW를 분기 영업적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바닥 대비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함에 따라 밸류에이션 부담을 토로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2027~2029년 KMW의 이론적 매출액 최고치가 2019년 연결 매출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과 최근 미국 통신장비주 Multiple을 감안하면 현재 시가총액은 너무 적다는 판단이다. 2010년 이후 KMW는 연간 최대 국내에서 5천억원, 미국에서 2천억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기록한 바 있으며, 미국 광통신주 PSR이 30배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과 한국 시장이 동시에 호황을 누린다면 이론적으로 KMW의 연결 매출액은 7천억원을 넘을 수 있으며 PSR이 10배만 넘어간다고 해도 사상 최대 시가총액 경신이 가능해진다. 아직 한국은 물론 미국 통신사 5G CAPEX 증대 기대감이 KMW 주가에 많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향후 KMW 주가 상승 폭이 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결정적인 이유다.

5월 2차전지 수출입 동향 상세

2차전지 수출입 Data in detail | 2026.6.2



투자의견

Overweight

2차전지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리튬이온전지 수출 현황

5월	품목	수출 총액		수출 중량		수출 단가		누적	수출 총액		수출 중량	
		5월(\$백만)	YoY(%)	5월(천톤)	YoY(%)	5월(\$/kg)	YoY(%)		5월(천톤)	YoY(%)	5월(천톤)	YoY(%)
	리튬이온전지(전기차용)	63.7	6.8	1.7	3.4	37.9	3.3		63.7	6.8	1.7	3.4
	리튬이온전지(ESS용)	152.8	-19.5	6.1	-32.8	25.0	19.7		152.8	-19.5	6.1	-32.8

2차전지 관련 소재 수출 현황

5월	품목	수출 총액		수출 중량		수출 단가		누적	수출 총액		수출 중량	
		5월(\$백만)	YoY(%)	5월(천톤)	YoY(%)	5월(\$/kg)	YoY(%)		5월(천톤)	YoY(%)	5월(천톤)	YoY(%)
	동박	26.5	-0.4	1.8	-6.9	15.1	7.0		26.5	-0.4	1.8	-6.9
	분리막	40.2	-13.4	0.7	-7.1	55.4	-6.8		40.2	-13.4	0.7	-7.1
	양극재(전체)	311.8	-14.9	13.2	-14.5	23.7	-0.5		311.8	-14.9	13.2	-14.5
	양극재(NCM)	184.0	-26.4	8.2	-24.6	22.5	-2.4		184.0	-26.4	8.2	-24.6
	양극재(NCA)	115.8	10.6	4.5	19.1	25.9	-7.1		115.8	10.6	4.5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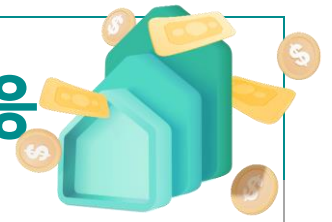
2차전지 관련 소재 수입 현황

5월	품목	수입 총액		수입 중량		수입 단가		누적	수입 총액		수입 중량	
		5월(\$백만)	YoY(%)	5월(천톤)	YoY(%)	5월(\$/kg)	YoY(%)		5월(\$백만)	YoY(%)	5월(천톤)	YoY(%)
	전구체	70.9	-39.1	5.6	-44.0	12.7	8.7		70.9	-39.1	5.6	-44.0
	수산화리튬	49.6	-29.9	3.6	-36.9	13.8	11.1		49.6	-29.9	3.6	-36.9
	황산니켈	2.5	-69.3	0.6	-70.5	3.8	4.2		2.5	-69.3	0.6	-70.5
	음극재	3.4	-22.6	0.8	-0.9	4.0	-21.9		3.4	-22.6	0.8	-0.9
	천연흑연	2.1	-46.4	1.8	-36.4	1.2	-15.8		2.1	-46.4	1.8	-36.4

시사점 및 의견: 해외 EV 가동률 부진 지속

- 5월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 수출 중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ESS용 리튬 배터리 수출 중량은 전년 대비 -33%, 전월 대비 -50% 감소했다. 이는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국내 업체들의 현지 ESS 생산 확대 추세와, 대형 프로젝트·입찰 일정이 연말에 집중되는 특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 5월 양극재 수출액은 YoY -15%, MoM -20% 감소했고, 수출 중량은 YoY -15%, MoM -22% 감소했다. NCM 수출 중량은 감소세 이어졌으나, NCA 수출 중량은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며, 5월에도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NCA 양극재가 주로 원통형 전지 및 ESS(BBU)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원통형 폼팩터 및 ESS 시장 확대에 따른 낙수 효과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 향후 국내 생산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수입 흐름은 여전히 부진하다. 5월 전구체 수입 중량은 YoY -44%, MoM -13% 감소하며, 5년래 가장 낮은 수입량을 기록했다. 수산화리튬 수입 중량 역시 YoY -37%, MoM -58% 감소했다. 한편, 황산니켈 수입 중량은 YoY -71% 감소했으나, MoM +29% 증가했다. 전월 대비 증가폭이 큰 이유는 기저 효과일 뿐, 여전히 수입 중량(600톤)은 저조한 상황이다.
- 5월 수출입 데이터에서 섹터 전반의 실적 반등 신호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 특히, 미국 및 유럽 EV 배터리 공장 가동률 회복의 가능자 역할을 하는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부진하다는 점에서 EV 관련 실적 흐름은 지속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출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적 성장세 지속 예상되는 미국 내 ESS 생산 증대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선별 접근을 권고한다(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6월은 삼성물산과 아이에스동서로 대응



건설 Weekly | 2026.6.2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13.6%p 하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과 연기금이 매도, 외인이 매수했다. 기관은 주요 건설주를 전반적으로 매도했으며, 외인은 원전주와 삼성물산을 매수했다.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건설섹터는 하락했다. 이란과 미국 간 전쟁 종전을 위한 MOU가 언급되어 재건주를 중심으로 상승했지만, 최종 백악관 사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진행 상황에 재차 하락했다.
-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7.5으로 4주 만에 하락했다(-0.2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39주 연속 상승(+0.06%), 전세가는 50주 연속 상승했다(+0.10%). 수도권 매매가는 65주 연속 상승(+0.13%), 전세가는 66주 연속 상승했다(+0.13%). 서울 매매가는 70주 연속 상승(+0.25%), 전세가는 67주 연속 상승(+0.26%)했다. 지방광역시 매매가는 하락(-0.02%), 기타지방은 역시 하락했다(-0.01%).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43주 연속 상승, 기타지방 39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3%). 광역시별 매매가는 울산(+0.09%), 인천(+0.03%)이 상승, 부산(-0.01%), 대전(-0.02%), 대구(-0.03%), 광주(-0.10%)가 하락했다.
- 원전과 재건주의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 원전의 경우 2분기 이벤트가 부재한 영향이 컸다. 스토리는 하반기 여전히 유효하나, 당장의 소식들이 없는 상황에서 타 섹터의 주가 급등은 원전주의 차익실현으로 이어질 만했다. 2분기 기대했었던 페르미 마타도르의 뉴스 부재, 홀텍SMR의 부지 착공 계약은 3분기로 예정되면서, 원전에 대한 단기 기대감이 떨어졌다. 그래도 중장기적인 원전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3분기 베트남 팀코리아 건설사 입찰이 있으며, 홀텍 펠리세이드 SMR 부지 착공 계약, 대미투자에 대한 원전 투자 기대감, 4분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원전, 2027년 SMR 등 이벤트들이 대기 중이다. 최근에는 현대건설의 SMR 파트너사인 홀텍이 유타주 그린리버 첨단 원자력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뉴스가 있었다. 파트너인 현대건설의 참여도 예상되는 가운데, 인허가 및 자금조달 등을 걸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본착공은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대형원전 관련해서는 VC써머 공사 재개 여부가 미국 내 대형원전 신규착공에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운용사 브룩필드가 건설 중단된 원전인 VC써머(2, 3호기)를 주정부 소유 전력사 산티쿠페에게서 인수하는 MOU를 체결(25년 12월)하여, 공사 재개를 추진 중이다. 브룩필드는 6월 26일까지 초기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초안 경제 개발 계획을 산티쿠페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시된 보고서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 최종 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다. 미국 내 신규 대형 원전이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벤트다.
-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전 중이나, 농축 우라늄의 처리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MOU 초안에 승인하지 않았고,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이란에 재발송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자위적 목적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종전의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종전 후 발주를 기대한 재건주(삼성E&A, GS건설)와 이란 개발 수혜주(DL이앤씨)의 선포가 약화됐다.
- 종전의 불확실성, 고유가 장기화 및 자재 가격이슈,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가 존재한다. 최근 주식시장의 주가 흐름은 주도하는 이벤트에 어떻게 탑승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벤트에 따른 적극적인 스위칭 전략을 추천하며, 6월까지의 개별 종목 이벤트로 대응하기를 제안한다. 이에 삼성물산(반도체, 저PBR)과 아이에스동서(6월 경산 분양)를 TOP PICK으로 추천한다. 종전에 따른 중동 재건(삼성E&A, GS건설)과 이란 개발(DL이앤씨)은 종전결과가 나타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원전주(현대건설, 대우건설)는 3분기에 대응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6/1	317,000	349,000	1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현대차 (005380.KS)	6/1	723,000	750,000	3.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와 인센티브 부담에도 HEV 비중 사상 최대 수준까지 확대되며 제품 믹스 개선 지속 단순 자동차 제조업을 넘어 모빌리티·AI 프리미엄 구간 진입
LG에너지솔루션 (373220.KS)	6/1	458,000	455,000	-0.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S 출하 증가와 AMPC 증가 효과 맞물리며 3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 예상 ESS 시장 확대와 빠른 CAPA 증설에 따른 2028년 이익 추정치 상향 가능성 유호
HD현대중공업 (329180.KS)	6/1	696,000	684,000	-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건조 Mix 중 저마진 상선 비중 높아 향후 개선 여력이 경쟁사 대비 많아 데이터센터용 엔진 공급 수주를 통해 발전용 엔진 시장으로 성장기 성장동력 확대 전망
LG이노텍 (011070.KS)	6/1	1,458,000	1,530,000	4.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2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KT&G (033780.KS)	6/1	184,700	185,100	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담배의 두 자릿수 성장과 국내 킬런 점유율 상승으로 호실적 기대 자사주 소각·신규 매입 및 배당 확대 기조가 이어지며 모범적 주주환원 부각될 전망
삼성증권 (016360.KS)	6/1	119,800	124,500	3.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로커리지·WMIB 수수료가 모두 개선되며 리테일 강세 국면의 실적 레버리지 부각 국내증시 거래대금 확대와 IBKR 외국인 통합계좌 출시로 투자자 저변 확대 기대
OCI홀딩스 (010060.KS)	6/1	349,500	351,000	0.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용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덕산하이메탈 (077360.KQ)	6/1	12,990	12,250	-5.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Q26 Preview 매출액 2,115억원(YoY +67.0%), 영업이익 263억원(YoY +69.0%) 전망 데이터센터 내 일반 디램 및 낸드 채용 확대에 솔더볼 수요 증가 중
에치에프알 (230240.KQ)	6/1	31,850	31,100	-2.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미국 AWS-3 재경매를 시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주파수 경매 예정 AT&T의 CAPEX 확대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퇴출에 따른 북미 통신장비 투자 수혜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29%	-2.39%p	+87.37%	+8.20%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현대모비스 (012330.KS)	6/1	768,000	761,000	-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 부문, 유럽-미주 수요 호조와 판가 인상, 우호적 환율 효과로 26%대 고마진 회복 보스턴다이내믹스향 로봇 핵심부품 내재화로 로봇 현금흐름 가치 부각될 전망
삼성전기 (009150.KS)	5/26	1,340,000	2,005,000	49.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서버 랙 전력밀도 상승과 800VDC 전력 인프라 도입으로 서버용 MLCC 탑재량 증가 타이트한 수급과 가격 조건 개선이 하반기 실적 레버리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삼성증권 (016360.KS)	5/26	129,900	124,500	-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로커리지·WM·IB 수수료가 모두 개선되며 리테일 강제 국면의 실적 레버리지 부각 국내중시 거래대금 확대와 IBKR 외국인 통합계좌 출시로 투자자 저변 확대 기대
OCI홀딩스 (010060.KS)	4/20	267,500	351,000	3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감 상승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2,363,000	13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RFHIC (218410.KQ)	4/13	91,900	87,600	-4.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NXP의 통신 부문 철수와 미국/EU의 중국 장비 규제 강화로 MS 확대 예상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349,000	108.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두산에너지빌리티 (034020.KS)	4/1	91,800	106,900	16.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2026년 에너지빌리티 부문 가이드선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20.3조원 제시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413,000	2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1,530,000	42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2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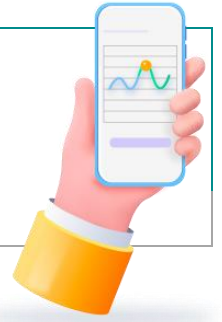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40.25%	-17.29%p	+63.66%	-15.5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53,940	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3,070	-1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6,920	4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8,625	4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598.93	7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전력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PHQ (미국 대형 쉐어주)	2026.03.23	75.80	85.36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6.29	2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7.63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5.31	6.1	6.2	6.3	6.4	6.5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5월 제조업 PMI (50, 이전치 50.3) 중국 5월 서비스업 PMI (50.1, 이전치 4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수입 (20.8%, 이전치 16.7%) 한국 5월 수출 (53.2%, 이전치 48.0%) 한국 5월 제조업 PMI (54.8, 이전치 53.6) 일본 5월 제조업 PMI (54.5, 이전치 54.5) 미국 5월 서비스업 PMI (E 55.3, 이전치 55.3) 유로존 5월 제조업 PMI (51.6, 이전치 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CPI (2.9, 이전치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0.0) 미국 5월 서비스업 PMI (50.9, 이전치 5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로존 5월 서비스업PMI (E --, 이전치 4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로존 4월 PPI (E --, 이전치 2.1%) 유로존 1분기 GDP (E --, 이전치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5월 실업률 (E --, 이전치 4.3%)
6.7	6.8	6.9	6.10	6.11	6.12	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전기대비/전년대비 1분기 GDP F (E --/--, 이전치 0.5%/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1분기 전기대비/전년대비 GDP A (E --/--, 이전치 1.7%/3.6%) 중국 5월 수출 (E --, 이전치 14.10%) 중국 5월 수입 (E --, 이전치 25.30%) 미국 4월 무역수지 (E --, 이전치 -\$60.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전월대비/전년대비 PPI (E --/--, 이전치 2.3%/4.9%) 중국 5월 PPI (YoY) (E --, 이전치 2.80%) 중국 5월 CPI (YoY) (E --, 이전치 1.20%) 미국 5월 전월대비/전년대비 CPI (E --/--, 이전치 0.60%/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실업률 (E --, 이전치 2.8%) 유로존 5월 기준금리(주요재용자금리) 결정 (E --, 이전치 2.15%) 미국 6월 1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미국 5월 전월대비/전년대비 PPI 최종수요 (E --/--, 이전치 1.40%/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4월 전기대비/전년대비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0.8%/2.3%) 미국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A (E --, 이전치 44.8)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